

편집위원 칼럼

밀레니엄 시대, 양계인의 마음가짐



김 순 재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과거 20세기는 격변기로 세계대전을 두 번이나 치렀고 월남전, 그리고 국내에서는 6·25의 동족살생의 쓰라린 비극을 겪었다. 문화연구가인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20세기는 고전적인 영웅이 사라진 시대이며 나라 사이의 전쟁이 현대의 비극을 낳은 주범이요 민족과 종교, 이념의 이름으로 발생된 야만적 살육과 증오, 범죄 역시 비극을 낳은 역사적 동력이다. 역사의 도전에 쓰러져간 왕족, 역사의 부조리에 맞섰던 지식인, 그 앞에 항거할 힘조차 제대로 없었던 민중이 모두 20세기 비극적 산물이라고 갈파하였다.

국내에서는 수차례의 정권이 뒤바뀌면서 정치와 경제가 혼란과 호·불황에 뒤영키는 가운데 양계업은 산업화해 왔고 그 안의 양계인들의 정신력은 살아 있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세계가 급변하는 새 천년은 생산, 제조에서 정보화산업으로 변화해 가며, 생산자 시대에서 시장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위주로 산업이 변화해가는 새 천년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양계인들의 남다른 노력이 절대 요구되는 새 천년의 시작의 첫해로서 천적(天敵)과 인적(人敵)을 극복해야 한다.

양계산업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한 두 종류의 적이 항상 앞뒤에서 방해하여 왔다. 그 적은 천적과 인적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천적이라면 질병에 의한 피해로 생산성 저해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여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힐 천적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그 중의 대표적인 질병으로서 뉴캐슬병, 추백리, 마력병, 감보로병, 갑자기 돌풍처럼 튀겨 나온 전염성 후두기관염, 전염성기관지염, 근래에 와서 큰 피해를 주는 가금티푸스 등 수없이

많은 질병들이 양계인들을 괴롭힌 것들이다.

이러한 질병들은 때로는 공포의 대상으로 여길 정도로 양계인의 생계를 위협하여 왔고 심지어는 양계인들끼리 모임을 갖는 것을 겁낼 정도로 공포의 전염병으로서, 한참 산란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도록 효자역할을 하던 닭에서 피를 토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닭을 보고 통곡하였다는 사실이 1982년에 처음으로 발생한 전염성 후두기관염이 바로 그 질병이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외국에서 크게 문제되지도 않는 가금티푸스가 창궐하여 양계인의 고민대상이 되고 있다.

사실은 이 보다 훨씬 앞에서 1930년대부터 공포의 질병인 뉴캐슬병으로 한 양계장을 도계장을 연상케하는 폐농으로 몰고 가던 질병이 지금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질병을 예방하고 진료에 평생을 바친 저로서는 양계인들에게 더 할말이 없으며 변명할들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두 번째의 적은 생산과잉의 조정실패로 인한 가격폭락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자초하였으며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 즉 세계화로 WTO 체제하에 무역경쟁은 썰물처럼 침입해오는 닭고기, 계란 등 양계산물이 우리 양계산업을 직·간접으로 피해를 양계인들에게 주면서 계속적으로 위협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무역경쟁 속에서 무역자유화에 따른 양계인들의 현명한 대비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제경쟁에 적극 대항할 수 있는 생산성제고방안, 고품질 개발 및 향상 등이 아직 부족하고 양계산업에 대한 빈약한 투자, 우리

크면 죽지 않는다는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정신으로
대기업이 경제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IMF를 자초하였으므로
이를 교훈 삼아 양계인들은
천적과 인적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고유의 상품 개발을 위한 브랜드화의 취약성 때문에 발전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속에서 양계산업은 영세성에서 기업화, 산업화로 발돋움하고 있음은 매우 희망적이다.

뜻하지 않은 IMF로 인하여 정치, 경제의 불안정으로 불경기에 민감한 양계산업에 미친 저해 요인들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적이기 때문에 인적이라고 정의하지 않을 수 없다.

크면 죽지 않는다는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정신으로 대기업이 경제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IMF를 자초하였으므로 이를 교훈 삼아 양계인들은 천적과 인적을 지혜롭고 현명한 대책이 창출되도록 양계인들을 위시하여 관련 정부기관, 산업단체, 연구 및 학계가 공동체의 운명을 띠고 끊임없는 지구노력 하는 것 이외에는 기발한 방안이 따로 있을성 싶지 않다. 양계